

스탄코미르 니치에야 Stankomir Nicieja

부교수

오폴레 대학교

문화연구학과

표지모델에서 괴물이 되기까지: 폴란드 정치·경제 이행 30 년

오늘날 폴란드가 겪고 있는 전환의 경험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폴란드의 변화, 1989 년은 물론 우익 권위주의로의 이동과 결합된 최근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가? 점점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반 크라스테프 Ivan Krastev 와 스티븐 홈스 Stephen Holmes 가 저술한 『모방시대의 종말』 *The Light that Failed: A Reckoning* 과 앤 애플바움의 『민주주의의 황혼: 정치의 실패와 친구들의 결별』 *Twilight of Democracy: The Failure of Politics and the Parting of Friends*(2020)이 그것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현행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두 책은 모두 폴란드를 대표적 사례로 다루고 있다. 또다른 저명한 폴란드 권위자인 데이빗 오스트 David Ost 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제시한 바 있다. "나는 오랫동안 폴란드를 다루어왔다. [...] 그것은 폴란드의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세계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 그렇게 믿는 폴란드인들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서구는 폴란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때로 그것은 경이로운 교훈이다. [...] 때로 폴란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참가 요청을 오스트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폴란드의 운명은 세계적 패러다임과 추세를 연구하는 이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끌고 있다. 또한 폴란드의 경험은 특히 한국인들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다. 지리적 거리와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놀라운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폴란드와 한국은 모두 인접한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두 나라는 모두 다른 나라의 야만적 강점, 극심한 전쟁, 대량 이주, 독재, 민주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야 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폴란드 현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처럼 보였다. 지배적인 서사 양식은 고정되었으며 표면적으로 사소한 세부사항을 선별하거나 강조점을 선택할 여지만이 남아 있었다. 2015 년까지 폴란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대표적인 나라로 역할했다. 그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서구 자유주의 엘리트의 교두보이자 그들의 세계관과 경제 공식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러시아(1990 년대 초반)와 이라크(2003 년 침공 이후)의 자유시장 실험은 엄청난 재난으로 막을 내렸다. 수십 년에 걸친 전례없는 경제적 성장과 모든 합리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완고하게 민주화를 거부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폴란드는 이와는 반대되는 하나의 고무적인 사례를 나타냈다. 더욱이 폴란드가 서구적 자유주의 노선을 따라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증거는 풍부하고도 다양했다. 폴란드의 도시들, 특히 바르샤바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의 생기없음을 벗어버리고 활기찬 세계의 허브이자 관광명소로 등장했다. 가시적인 인프라 개선은 견고한 정치적 성취와 병행되었다. 1999 년 폴란드는 헝가리 및 체코 공화국과 함께 나토에 가입했다.

2004년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4년 후인 2008년에는 국경없는 여행이 가능한 쉥겐 지역에 합류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경제 분석에서도 경기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거둔 경제적 성공의 근원을 검토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Breakout Nations*(2012)에서 루치르 샤미르 Ruchir Sharnma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은 [...] 부유한 엘리트들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다가 그들 사이에 합류한 보기 드문 국가 부류에 속한다." 2014년 7월 10쪽으로 구성된 한 특별 보고서에서 <이코노미스트>지는 폴란드의 성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폴란드의 황금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표했다. 단 1년 만에 이러한 분위기 중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어떤 것도 없었다. 2015년 가을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법과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정부를 결성했다.

법과정의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획득했음에도 이것은 당수 야로스واف 카친스키가 마침내 "바르샤바에서 부다페스트를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 말로 그가 의미한 바는 몇 년 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채택한 조치를 폴란드에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임명된 폴란드 내각은 거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잠식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친정부 판사들의 임명으로 무력화되었다. 공영방송국은 장악되어 이후 노골적인 선전 기계로 전환되었다. 새 행정부는 행정조직과 다양한 문화기관을 당 충성파들로 채우는 동시에 경험많은 전문가들을 해고했다. 게다가 이 모든 조치들은 고조되는 문화 전쟁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친정부 미디어와 국가 공직자들은 반이민자, 반동성애자, 반유대인 캠페인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역사 조작 및 극우파의 기행에 대한 경악스러운 용인은 표준이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전개들로 인해 폴란드 정부는 여러 유럽연합 기관들과 충돌을 빚었으며 긍정적이었던 국제적 이미지는 훼손되었다.

폴란드에서의 포퓰리즘적 우파의 승리는 비단 서구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끔찍하고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비자유주의적 전환이 이전에 반공산주의 저항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이고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는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설명은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 논쟁은 오늘날 역동적인 정치 현실에 의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폴란드의 포퓰리즘적 우파는 계속해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며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충성스런 유권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헝가리와 달리 그들의 승리는 언제나 근소한 것이었다. 최근의 폴란드 대선이 보여주듯 사회는 현재의 진로를 지지하는 이들과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거의 50 대 50 으로 분열된 극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지난 30 년간 이룩한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성취를 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되었다.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기간은 폴란드의 역대 최고 시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웃들과의 평화로운 공존 및 꾸준한 경제 발전을 향유했다. 모든 대중적 지표들은 이 시기를 통해 폴란드인들의 삶이 나아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90 년과 비교해 2020 년의 폴란드인들은 보다 오래 살며¹ 훨씬 더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²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다. 1989 년과 2019 년

¹ 폴란드 여성들은 폴란드 남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8 년 가까이 더 살아간다.[역자: 원문이 비문으로 보여 다음 문장에 맞추어 적당히 번역하였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폴란드인들의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74 세, 여성의 경우는 82 세이다.

² 1990 년에는 인구의 7%만이 대학 학위를 보유했지만 오늘날 이 수는 30%를 상회한다.

사이에 폴란드의 GDP는 2.5 배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거의 14 배가 뛰었다. 가구 소득은 30 년간 두 배로 성장했으며 그 동안 폴란드의 가정은 더욱 커지고 보다 좋은 시설들을 갖추었다. 다른 결정적이고 측정가능한 변화들 또한 있었다. 범죄율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폴란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제적 전환은 주목할만한 많은 문화적 성취를 동반한다. 지난 30 년 동안 폴란드인들은 두 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1996 년 시인 비스바와 씬보르스카, 2019 년 소설가 올라 토카르추크) 폴란드 영화 산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은 폴란드 에로 영화 <365 일>(2020 년, 바르바라 비아워봉스 연출)이 보여주듯 폴란드는 심지어 국제적 소구력이 있는 저질 문화상품도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상기한 수치와 사실들은 현대 폴란드에 관한 여러 보고서, 개괄, 학술 연구 및 홍보 자료에서 관습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다. 그것은 20 세기에 폴란드가 겪은 전반적인 경험과 날카롭게 대비된다. 2 차 세계대전은 특별한 침체기를 나타낸다. 엄청난 물질적 손실과 별개로 3 백 2 십만명의 폴란드 유대인을 비롯해 6 백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전쟁의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폴란드는 민족 구성이 상당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까지 옮겨졌다. 얄타 회담(1945) 이후 폴란드의 국경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250km 이동되었다.

지난 30 년간의 폴란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긍정적 데이터는 분명 부분적 상만을 전달할 뿐이다. 많은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지워지거나 사람들의 이목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최근 폴란드 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비자유주의적 전환은 거의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 쟁점과 관련된 보다 진지한 논쟁은 이제서야 시작된 상황이다.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흔히 원한 *ressentiment*, 개인적 불만이나

콤플렉스 등을 비롯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인들을 지적한다. 예컨대 이미 언급한 앤 애플바움은 『민주주의의 황혼』에서 폴란드 민주주의 붕괴의 책임을 짐작컨대 능력은 떨어지지만 야심찬 우익 인사들에게서 찾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내재적으로 경쟁적이며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들은 옛 동료들로부터 권력을 비틀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권위주의에 의지했다. 홈스와 크라스테프는 『모방시대의 종말』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모방적 서구화" 속에 각인된 굴욕을 식별한다. 이러한 근대화 모델은 그들을 영구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한다. 결국 복제품은 영원히 복제품으로 남으며 정의상 결코 "원본"의 지위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크라스테프와 홈스뿐만 아니라 애플바움 역시 일차적으로 특정한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현재의 환멸에는 보다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다. 그러한 이유들은 매우 예측가능하며 지루할 정도로 친숙한 것들이다. 지난 30년간 폴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부유해졌지만 인구의 상당 부분, 특히 농촌과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빈곤한 삶과 축소된 전망에 처해졌다. 평균 소득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임금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복지 제공, 보건 및 교육이 여러 정부들에 의해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영구적 긴축 조치와 비용 절감에 종속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국 경제적 지표는 성장한 반면 공산주의에 맞선 싸움에서 폴란드인들을 통일시켰던 원대한 꿈, 즉 서구를 따라잡겠다는 그 꿈은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남았다. 인접한 독일의 노동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폴란드의 노동자들보다 적어도 세 배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그러한 확연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은 대량 이주를 자극한 동시에 폴란드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일어난 시민들의 대탈출을 동시에 경험한 이유를 설명한다.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이주는 특히 명백한 걸림돌이 되었다. 국경이 개방되었을 때 백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들이 서구로(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으로,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로) 이동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번영하는 경제 밖으로 몰아냈다.

오늘날 폴란드가 겪고 있는 경험은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의 용인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한 방식으로 역설하고 있다. 최취약계층을 돕지 않은 결과가 결국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사후복수로 돌아온 것이다. 폴란드의 사례는 또한 현대 정치에서 존엄이 갖는 역할을 확인시켜 준다. 폴란드 인구의 다수가 표출하는 열망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강력한 심리적 반응을 발생시켰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지닌 가장 유해한 측면은 승자에게 압도적인 보상을 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것과 별개로 패자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패자들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현 행정부의 지속적인 선거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의 사회복지 사업이었다. 주력 정책은 "500+"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심의 없이 18세 미만 아동당 매달 500 즈워티(대략 110 유로)의 현금을 가구별로 나눠주는 정책이다. 현금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사한 재정적 수혜가 연금수급자들에게 제공되며 그들은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정책으로는 전환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같은 대형 소득 재분배 정책은 예상대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한 정책들은 또한 가공할만한 투표층을 창출했다. 특히 동부 지방의 주민들을 비롯해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폴란드인들은 통상 투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늘날에는 반대 진영이 승리할

경우 사회적 제공이 회수될 것이라는 모호한 암시조차 법과정의당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모은다. 또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진영에서 아무리 부인하고 장담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안심을 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투신한 수년 동안 긴축과 자유시장 해법의 추종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반대 진영은 많은 폴란드인들이 보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되었다. 법치, 견제와 균형, 심지어 표현의 자유같은 관념조차 물질적 배제의 현실 속에서는 무의미하게 들린다.

전환의 문제 중 일부는 개혁론자들의 혁명적 열정 및 강력한 반공산주의적 감성과 관련되었다. 폴란드에서는 공산주의 시기 이루어진 긍정적인 성취를 수용하는 것이 공적 담화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상당 부분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 통치가 많은 분열을 제거하고 사회를 보다 도시적이고 평등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의 주요 수혜자들은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느낀다. 안드레이 레더 Andrzej Leder 는 이러한 현상을 "몽유병에 걸린 혁명 sleepwalked revolution"이라 불렀다. 그가 주장하듯 전후의 급진적 전환은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다. 그것은 폴란드 중간계급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건축가는 히틀러와 스탈린이었으며 폴란드인들은 단지 두 외국 독재자들이 만들어놓은 풍경을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전후 세대는 나치와 소비에트에 의해 말살되거나 추방된 구래의 폴란드 인텔리겐차와 토지 소유 젠트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워놓은 사회적 위치와 물리적 공간을 넘겨받았다.

앞서 있었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자 컨퍼런스 주제와 관련해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폴란드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회 중 한 곳으로 분류되며 인구의 상당 부분은 카톨릭 교회와 그 가르침에 대한 강한 애착을 분명하게 표명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폴란드의 가부장제가 특별히 강력하며 젠더 평등, 여성들의 정치 참여나 사업 종사를 평가하는 비교 연구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범주에서 거의 리더는 아니라 하더라도 폴란드는 통상 바닥보다는 상위권에 가깝다. 그리하여 예컨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서 폴란드는 29.13%로 최상위권 국가인 스페인과 스웨덴(각각 47.43%와 47.28%)과 여전히 격차가 나지만 동시에 폴란드의 점수는 캐나다(26.95%), 미국(23.56%), 아일랜드(22.15%)보다 높으며 네덜란드(31.33%), 영국(32%), 호주(30.46%)나 독일(30.89%)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17 명의 역대 폴란드 총리 중 세 명은 여성이었다. 여성 장관들의 비율은 새로운 내각이 꾸려질 때마다 거의 매번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가 배출한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여성이었다.

당연히 위에서 인용된 수치에 속아 폴란드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수많은 장벽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는 상당히 다르다. 현재의 여건을 만든 적어도 일부의 공은 공산주의 시기와 공산주의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가 1989 년 서구에서 도입되었다고 사고하기를 선호한다. 그러한 태도는 종종 전환에 대한 사고방식에 단순화가 수반됨을 잘 보여준다. 물론 현대 폴란드를 형성하는 많은 현상들은 1989 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유의한 과정들은 훨씬 더 깊은 뿌리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계보를 지니고 있다.

폴란드의 여성이라는 쟁점으로 돌아가 폴란드 여성들의 운명을 형성한 고유한 지역적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될 것이다. 지난 10 년 간의 사회학적 데이터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 여성들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이들 중 점점 많은 수는 공개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여성들의 정치 행동 점수를 견인하는 최근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낙태의 쟁점이다. 주로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보유하고 있다. 합법적 낙태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태아가 종종 유전 질환에 걸렸거나 기형인 경우,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임신이 성폭행의 결과인 경우가 그것이다. 2016 년 가을 폴란드 의회가 이미 제한적인 낙태 관련 법률을 더욱 억제하는 법개정 절차에 착수했을 때 폴란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소위 검은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악명 높은 낙태 금지 법률의 폐기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검은 행진은 현 체제의 계획이 사회운동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지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모든 폴란드 여성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언급되어야 한다. 그들 중 다수는 바리케이트의 반대편에 서 있다. 제한적 법률의 배후에 있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여성인 카자 고덱 Kaja Godek 이었다. 그녀는 당시 수상이었던 베아타 시드워 Beata Szydło(물론 여성이었다)를 비롯해 법과정의당에 소속된 거의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았다.

폴란드의 경우 생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와 결합된 논쟁은 많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된 촉매제가 되었으며 최근 수년 간 진행된 사회학적 연구는 흥미로운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다. 폴란드의 젊은 남성들이

보다 빈번하게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제에 매료되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오늘날의 폴란드에서 그들은 가장 진보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유권자층의 일부가 되었다.

정치적 이행 이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폴란드는 결정적인 시기에 진입했다. 반포퓰리즘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이 자유 민주주의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추세를 멈출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다음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들은 현재 매우 분명해졌다. 폴란드의 사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영향에 대한 더 큰 고려 없이는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보다 저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폴란드는 또한 인구의 큰 부분이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될 때 이들의 반격은 오랫동안 지연될지언정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폴란드 정치 풍경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특히 굴욕 및 자부심과 맞물린 정서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정서는 좌절된 물질적 열망에서 파생되지만 견고한 정체성으로 빠르게 결정화될 수 있다. 폴란드는 또한 자유주의 세력이 재집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단지 권위주의와 인종혐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새롭거나 특별히 계시적인 통찰이 아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정초하고 유럽의 전후 재건을 위해 일했던 정치인들은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